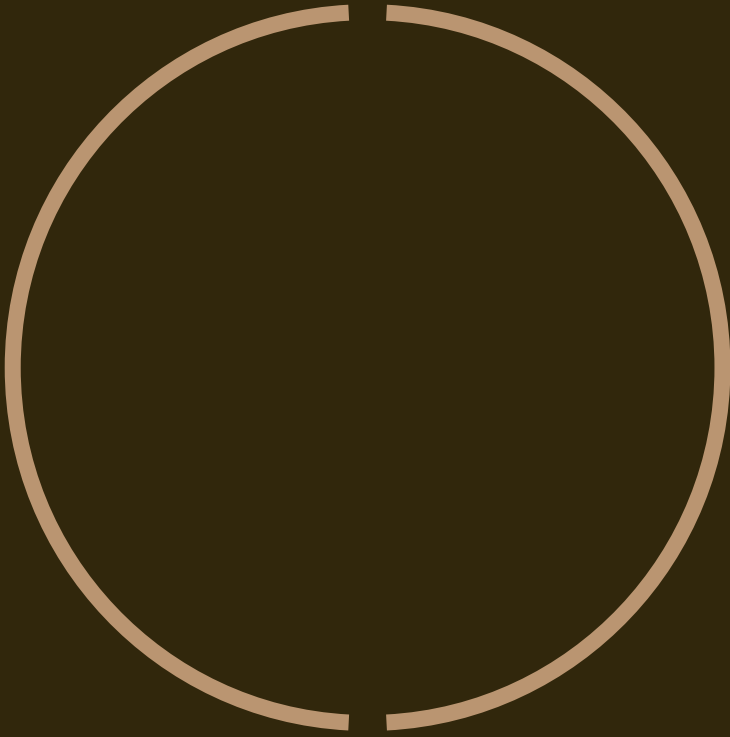


vol.146



따뜻함(溫)을 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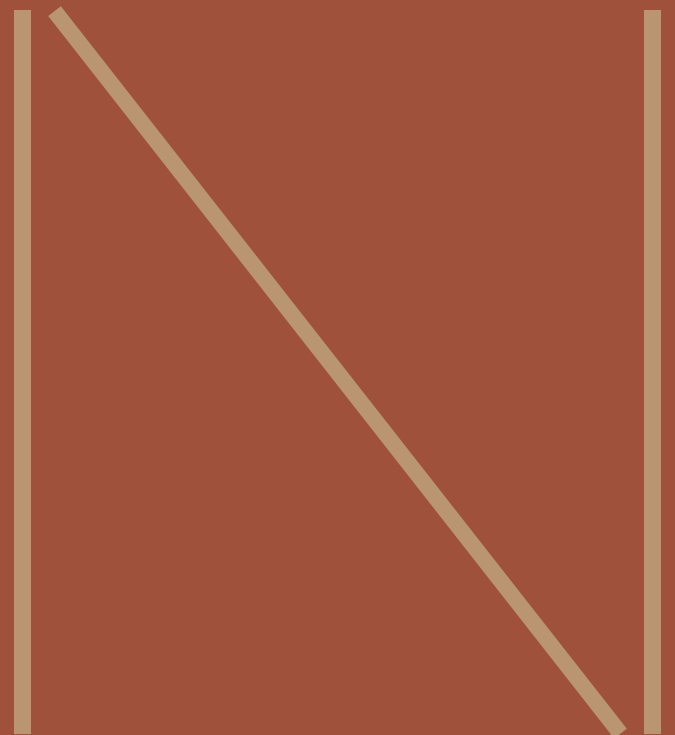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2 AUTUMN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언제나 환자와 안전을 향한 생각으로 바른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Think Safety Build Value+

안전에 가치를 더하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언제나 환자와 안전을 향한 생각으로  
바른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2021년  
환자경험평가 국내 1위

# 우리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사람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종종 찾게 되는 곳, 병원입니다. 몸에 작은 이상 신호라도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때 병원을 찾아 친절하고 따뜻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한다면 아픔은 치유되고 마음은 위로를 얻습니다.



아픈 이들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도 어루만지는 인하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환자경험평가'에서 종합 평균 최고 득점 90.48점을 기록하며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병원 1위에 선정됐습니다. 이 결과는 그간 환자 중심의 의료를 묵묵히 실천해온 인하대병원의 행보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특별한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향한 신념으로 바른 가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환자, 즉 '사람'을 가장 우선에 두고 환자가 만족하는 병원, 아픈 이들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06

인하대병원보 2022년 가을호(통권 제146호)  
발행일 2022년 9월 10일  
발행인 이택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3000

# CONTENTS

02

병원 풍경

우리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06

특별한 만남

인하대학교 의료원 이택 의료원장

## SPECIAL THEME 황홀하고 달콤한 베이킹의 세계

12

SPECIAL THEME 01

외길 빵순이의 고백

14

SPECIAL THEME 02

빵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18

SPECIAL THEME 03

건강한 빵을 파는 비건 빵집

22

SPECIAL THEME 04

이것만 있으면 나도 파티시에



12



## 사람과 건강

26

건강 읽기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뇌경색의 원인과 치료

28

인하포커스

입원의학과

34

영화와 인생

영화 <만추>와 <냉정과 열정 사이>

36

계절밥상

밥상 위에 차린 단정한 건강

40

서울 여행

성수동 프리덤

40



34

## 인하, 사람

44

인하가 만난 사람

암통합지원센터

48

행복한 의사

내분비내과 서다혜 교수 & 안성희 교수

52

친절한 인하인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54

인하미디어

언론 속 인하대병원 & 유튜브 채널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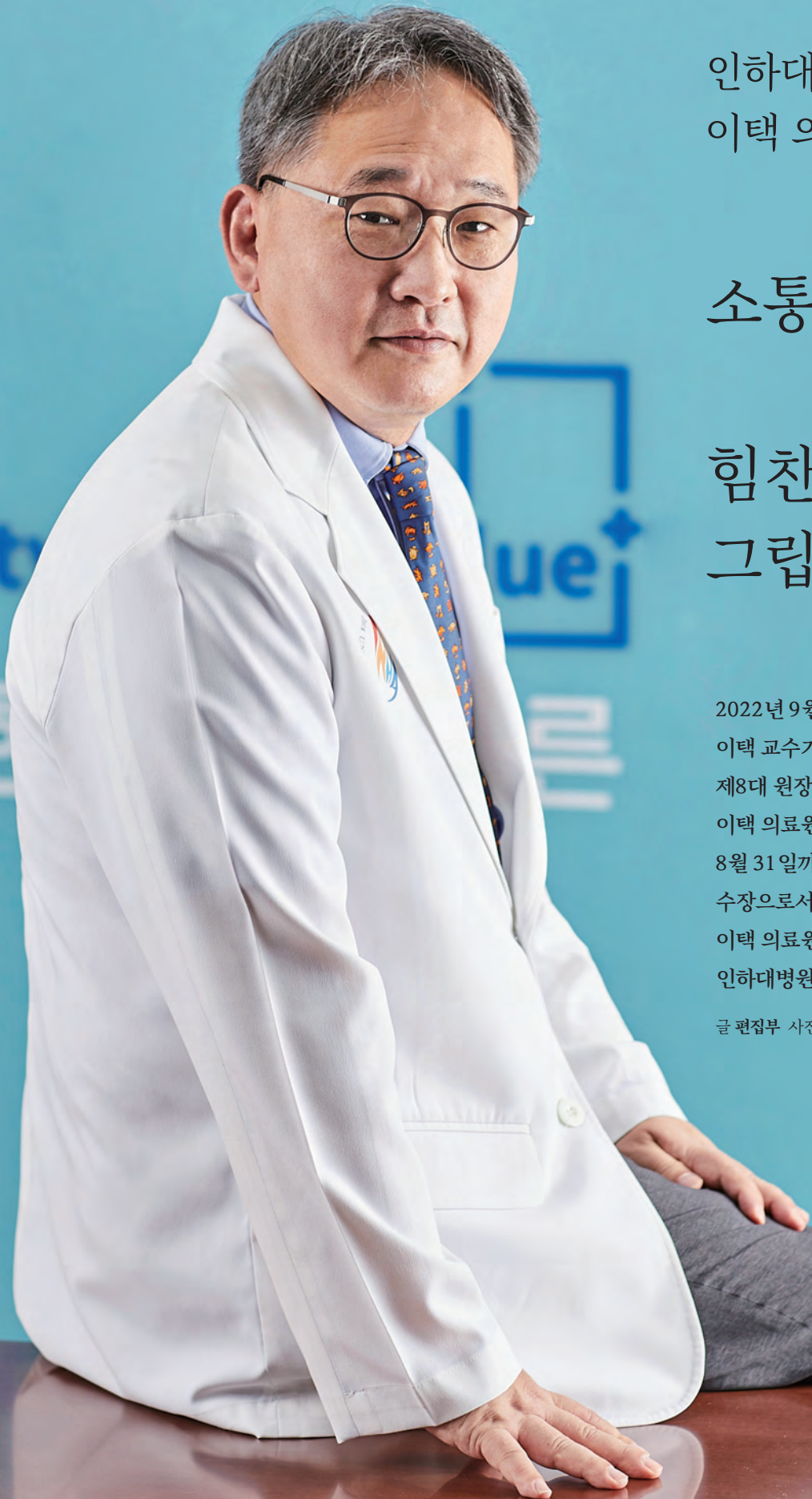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8

세계 속 인하대병원

함께 나아가는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 의료원  
이택 의료원장

소통과 혁신으로

힘찬 미래를  
그립니다

2022년 9월 1일, 비뇨의학과  
이택 교수가 인하대학교 의료원  
제8대 원장에 취임했다.  
이택 의료원장은 임기인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 인하대학교 의료원의  
수장으로서 인하대병원을 이끌어간다.  
이택 의료원장에게 그가 그리는  
인하대병원의 미래를 들었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N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의과대학 교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연구실에서 전공 분야를 연구할 때 가장 즐겁고 보람이 큼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인하대병원의 더 큰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으니 원장실을 진료실이자 연구실 삼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병원장 취임 후 많은 이들로부터 축하 인사와 응원을 받았습니니다. 경황이 없어 한분 한분 답례 인사를 드리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울러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인하대병원과 인하대학교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부와 초심을 전합니다. 아울러 포부와 초심을 잃지 않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N **원장님께서 비뇨의학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간 인하대병원에서 진료하며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얼마 전 병원을 찾았던 10대 후반의 남성 환자가 생각납니다. 하루에 수십 번 배뇨할 정도로 소변을 자주 보고, 화장실 가기 전 소변이 미리 새는 급박요실금 증상도 심각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여러 큰 병원을 다니면서 여러 검사와 상당한 용량의 약물치료를 해왔지만, 전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요즘은 진단과 치료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고 첨단장비가 발달하다 보니 비뇨의학과 외래의 진료 침상 위에 환자를 눕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나이와 증상, 그리고 병력이 잘 연결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여 진료 침상 위에서 자세히 진찰했습니다. 음경을 관찰한 결과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포피의 출구 구멍이 매우 작고, 포피 안 귀두 주변에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피부 찌꺼기가 오랜 염증에 의해 결석 조각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음경의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청소년이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극심한 배뇨증상으로 고통받은 것입니다. 환자는 간단한 포경수술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환자 사례는 배뇨 장애 원인을 기

술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무척 드문 사례지만, 임상 현장에서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의학은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합니다. 환자마다 질병의 원인이 다를 수 있기에 문진과 기본진찰의 중요성이 매우 큼니다. 이런 것이 의학의 예술 속성일 것입니다. 저는 의무부총장을 겸직하는 덕분에 학생과 전공의 대상 의학교육을 총괄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의학의 과학·예술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갖춰 실력 있는 의사가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N **병원장님께서 병원장으로 취임하시기 직전 기획조정실장 보직을 맡으며 인하대병원이 선제적으로 중증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정부 주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신 바 있습니다. 그간 인하대병원 발전전략을 유지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 빈번해진 감염병 위기 상황과 대학병원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그리고 환자 중심 의료 구현 추세 등에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년 내 인하대병원은 우리나라 빅5(Big5) 병원 중 네 개 병원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적인 평가지만, 종합병원 서비스 질 전반에 대한 평가로서는 미국의 뉴스워크지 평가가 가장 권위 있는데, 인하대병원은 평가대상 우리나라 300여 곳의 종합병원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최상위 병원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환자경험평가는 독보적인 1 위입니다. 인하대병원은 국립대병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4차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병원으로서의 혁신적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상과 성과에 안주하려 했다가는 곧 뒤쳐질 수 있습니다. 의료환경 변화보다 우리의 혁신 속도가 느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보호자 없는 간병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중 최초로, 또 최대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인하대병원입니다. 아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또한 인하대병원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저는 예상



합니다. 이 사업이 본격 시작하게 되면 우리 병원은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실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중환자실 등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의료기관과의 실질적이며 제도의 뒷받침을 받는 진료협력체계가 가동되어 인천권역 의료전달체계의 정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인하대병원이 지역 내 중환자들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인하대병원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N **병원장님께서 바라는 인하대병원의 모습은 무엇이며, 앞으로 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전하는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서 이미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인하대병원은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인천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정점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은 물론 보호자 없는 간병 서비스 등 환자 중심 의료 구현을 선도했고, 지금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이야말로 지금의 인하대병원 성과를 이룬 주역들입니다.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더 크게 갖고, 국내를 넘어 세계 일류로 도약하고자 하는 인하대병원의 발전 역사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저도 병원장으로서 혁신과 소통의 리더십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병원의 발전과 교직원들의 행복에 관한 제언이라면 언제든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N **인천 지역사회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평소 생각이기도 한데요. 인하대병원에 대한 시민들과 환자들의 믿음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하대병원은 1996년 한진그룹 故 조중훈 회장의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지역사회 보은’이라는 숭고한 뜻에 따라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하여 지역사회와 시민과 함께하는 병원,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

해 많은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최근 인하대병원은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개인의 선호와 필요가 존중되고 병원이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하는 환자경험평가에서 전국 종합병원 중 독보적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사랑과 인하대병원 교직원들의 정성이 더해져 이룬 성과입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진료 프로세스 등을 더욱 개선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존중하며, 세계 일류 환자 중심 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 **병원장님께서 좌우명이나 가치관으로 삼은 금언은 무엇인가요?**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원칙이라는 것이 입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경우라면 저는 객관적 사실과 다수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해 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께서도 경구로 삼고 있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저도 좋아하고, 이것은 제가 지키려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이 말의 의미가 더욱 절절하게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식견이 있는 한 사람의 주장보다는 여러 사람이 숙의하여 합의를 이루었을 때 이후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더 좋은 경우를 우리는 흔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관계된 이들의 의견을 가급적 많이 들 어본 뒤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집단지성이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할 것 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자고 해놓고 상급자가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을 먼저 내놓는다면 의미 있는 소통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하대병원의 원장으로서 교직원들과 의미 있는 소통을 하며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



ink Safety Buil

전을 향한 생각

가치를 더하다

만듭니다

의약의 가치

환자를 위한

ink Safety Buil

가치를 더하다

# SPECIAL THEME





# 황홀하고 달콤한

# 베이킹의 세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 식사를 꼬박꼬박하고도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디저트를 한입 베어 물면 그 허전함이 채워지는 듯한데요. 수많은 디저트 중에서도 ‘빵’은 우리와 아주 친밀합니다.

요즘 MZ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 중에는 ‘빵순이’ ‘빵돌이’를 자처하며 다양한 빵의 세계를 부지런히 탐닉하는 이가 많습니다. 맛있는 빵을 먹겠다는 일념으로 빵집 앞에 오래 줄을 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전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빵+성지순례)도 기꺼워합니다. 버터를 넣어 구운 초승달 모양의 일명 ‘고짬(고소하고 짜다)’ 맛으로 통하는 소금빵부터 다이어터도 즐길 수 있는 비건 빵까지 무궁무진한 빵의 세계에서 MZ세대들은 편의점 빵마저 ‘희귀템’으로 만들었습니다. 만화 캐릭터가 들어있는 캐릭터빵이나 빵 안에 생크림을 가득 채운 크림빵은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니까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빵의 종류는 6,000여 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내 집, 내 방에서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의 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각종 SNS와 미디어를 참고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를 겪으며 ‘홈베이킹’이 새로운 취미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무료함을 베이킹으로 해소하고 달래는 것이지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 와플 팬 등을 이용해 간단히 조리하면 갓 나온 뜨거운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서툰 실력이지만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어쩐지 더 맛있고, 각별하게 느껴지는 빵. 2022년 가을호 <ON>에서는 빵의 매력에 푹 빠져 볼까요?

글 편집부

앉은 자리에서 소금빵 다섯 개는 거뜰히 먹어 치울 수 있는 나는, 빵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지금 나의 통통한 몸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그토록 보드랍고 말랑하고 달콤한, 때론 고소하고 짭조름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빵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식탁 한편에는 빵이 가을 낙엽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빵을 좋아하는 부모님의 취향이 낳은 풍경이다. 우리는 자주 하얀 식빵 위에 검붉은 딸기잼을 듬뿍 얹어 보드랍고 달콤한 맛에 기분 좋게 취했다. 엄마는 곧잘 솔빵을 만들어 간식으로 내주셨다. 포슬포슬하고 촉촉한 노란 솔빵 한 덩이면 조그만 배가 울챙이처럼 불룩하게 불러왔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어린 내가 빵 앞에서는 전혀 다른 식욕을 앞세웠다.

요즘도 본가(本家)의 식탁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빵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어린 적 풍경과 달라진 것이라면 빵의 종류다. 주로 집 앞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판매하는 빵들인데, 오랜 시절 보아와서 마치 친구처럼 느껴지는 곰보빵이나 슈크림빵부터 품 안에 하얀 크림과 까만 껍을 가득 품은 단팥크림빵, 달달한 밤이 콕콕 박힌 밤식빵, 버터 향이 솔솔 풍기는 크루아상까지 전보다 폭넓고 훨씬 다양한 빵 덕분에 일주일에 한 번 본가를 찾는 나의 손길은 갈팡질팡 행복한 고민을 한다.

## 외길 빵순이의 고백

글 유미지

빵에 대한 나의 사랑은 하염없이 이어졌다. 대학 시절 휴학한 1년 동안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Part-timer)로 일했다. 아르바이트라면 응당 몇 개월이 고작이지만 마치 베이커리 본사의 직원이라도 되는 양 열정과 시간을 쏟았다. 그곳에서 나는 파티시에가 알려준 대로 뜨거운 기름에 참쌀도넛이나 크로켓(고로케)을 튀기고, 길고 훌쭉한 바게트를 빠른 속도로,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며 자부심을 느꼈다. 생크림 케이크에 과일도 장식하며 청춘의 한 시절을 지냈다. 복학 후 졸업하면 베이커리 본사에 지원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정도로 빵을 사랑하는 내게 빵집 아르바이트는 맞춤형이었다.

쉬지 않고 틈틈이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내게 가장 어려운 일은 ‘빵을 끊는 것’이다. 어쩐지 주식인 흰쌀밥을 먹지 않는 일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쉽지만, 빵이 뭐라고, 눈앞에 아른아른, 자나 깨나 빵 생각이 간절하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결코 쫓을 수 없는 외사랑 상대 같다. 도저히 빵을 외면할 수 없던 고독한 다이어터가 눈물을 삼키며 찾은 대안은 프로틴빵과 비건빵이다.

빵은 가을과 닮았다. 대부분 브라운 컬러로 옷을 잘 차려입은 그들은 (개인의 취향일는지 모르겠지만) 가을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쇼핑백 한가득 담은 빵은 오후가 무르익어 찬란한 열매를 맺는 수확의 계절 가을과 왠지 어울린다. 올가을, 나는 주방에 작은 오븐 하나를 들일 작정이다. 일평생 사랑하면서도 그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차근차근 꼬물꼬물 만든 단 하나의 소중한 빵을 단 한 명의 귀한 이에게 선물하고 싶다. 풍만한 계절, 가을이다.

유미지 작가는 세계 33개국에 발간되는 패션 라이선스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을 비롯한 다수 매체에서 피쳐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 여행, 컬처, 헬스를 두루 다루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 빵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우리는 자주 빵을 먹으면서도 정작 빵을 잘 알지 못한다. 그간 '맛있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면 이번 기회에 조금 달라져 보자. 빵, 알고 먹으면 먹는 즐거움은 두 배가 되고, 홈베이킹(Home Baking) 도전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빵을 찾아 세계 일주를 떠나보자.

글 김민정 참고 도서 『세상의 맛있는 빵 도감』(진신북스)



## 아주 오래된 빵의 역사

빵의 기원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시작됐다. 보릿가루에 물을 부어 얇게 구운 갈레트(Galette)를 먹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발효 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원전 3200년경에는 고대 이집트에 빵이 전해졌다. 빵을 만들다 하룻밤 방치한 무발효 빵 반죽에 우연히 천연 효모가 부풀었는데, 그것을 구웠더니 맛이 아주 좋았다. 발효 빵의 탄생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발효 빵을 ‘신이 내린 선물’이라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 뒤로 빵 제조법은 고대 이집트에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로 전해졌다. 로마 제국의 번영과 함께 빵 문화도 널리 퍼지면서 로마 시내에는 250여 개의 빵집이 생겼다. 이때 제빵 기술이 개발되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다.

유럽 로마 제국이 멸망할 즈음 빵은 기독교와 함께 전 유럽에 퍼졌다. 12세기 무렵, 부유층은 체에 거른 가루로 만든 ‘흰 빵’을, 시민은 거르고 남은 가루로 만든 ‘검은 빵’을 먹는 것으로 빵 색깔에 사회 계급이 반영됐던 시절도 있었다. 이후 14~17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일어났는데, 이때 제빵 기술이 크게 좋아졌다. 16세기에는 프랑스 왕가와 이탈리아 메디치 가문이 혼인하면서 많은 제빵사가 프랑스로 건너갔고, 17세기에는 비로소 세련된 프랑스 빵이 완성됐다. 이 무렵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의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왕실과 혼인하면서 프랑스에 크루아상을 들여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 미국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민 덕분에 여러 나라의 빵 문화가 유입된 이후 긴 세월이 흐르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1493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한 옥수수와 유럽의 빵 문화가 만나 콘 브레드(Corn Bread)가 탄생했고, 이는 여전히 미국 가정에 친숙한 빵이다.

### 중국

오래전부터 찌는 조리법이 많았던 중국에서는 보리가 유입된 당시에도 찌는 방식으로 조리했다. 발효시킨 반죽을 찐 것은 증병이라고 불렀다.

###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대량의 밀가루가 유입되면서 학교 급식으로 쿠페 빵이 배급되기 시작했다. 그 후 양산형 빵 공장이 속속 생겨났고 빵은 순식간에 일본의 식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이후 독자적인 과자 빵이나 간식 빵이 진화를 거듭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빵이 수입되었다.

### 한국

밀이 주식이었던 유럽은 빵의 역사가 길지만,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 빵의 역사는 100년이 좀 넘는다. 1885년, 선교사들이 빵을 구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빵이라고 전해진다. 숯불에 시루를 얹고 그 위에 빵 반죽을 올려 오이자배기로 뚜껑을 덮어 빵을 구워냈다. 포르투갈어 ‘팡데로’를 일본인들이 ‘팡’이라고 부르고,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빵’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빵은 로컬 라이징, 현지화되었고, 다양한 퓨전 빵이 만들어지고 있다.

## 세계 각국의 빵

굳이 멀리 길을 나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빵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맙다.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빵을 만나보자.

### 프랑스의 바게트(Baguette)와 크루아상(Croissant)

프랑스 가정식 식탁에는 늘 빵이 등장할 정도로 프랑스인들은 빵을 사랑한다. 이른 아침 자전거를 타고 단골 빵집에 들러 갓 구운 크루아상과 바게트를 사 오는 파리지역의 일상은 낭만과 여유를 보여주는 듯하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빵에 크루아상과 바게트가 빠질 수 없다. 바게트는 프랑스의 일반 가정에서 가장 자주 먹는 빵이다. 길쭉한 형태의 바게트는 프랑스어로 막대기, 또는 지팡이라는 의미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며 부드러운 바게트는 짭조름하고 담백한 맛 덕분에 다른 요리와 잘 어울려 식탁에 자주 오른다. 프랑스어로 초승달을 뜻하는 크루아상. 지금은 프랑스의 대표 빵이지만 16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람들이 터키(오스만 제국) 군의 깃발 표시인 초승달을 본떠 빵을 구운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이 있다. 진한 버터 풍미를 자랑하는 크루아상은 한 입 깨물었을 때 껍질이 훌쩍거리면 맛있게 구워진 것이라고 한다. 시간이 지난 빵은 오븐 토스터로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풍미와 식감이 살아난다.



### 독일의 브레첼(Brezel)

독일은 특히 빵의 종류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 대형 빵이 300종 이상, 소형 빵이나 과자류는 1,200종 이상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빵은 까맣고 묵직한 호밀빵이 대표적이다. 특히 북부 지역에서는 추위에 강한 호밀의 재배가 활발해 호밀빵이 주를 이룬다. 독일의 브레첼은 길고 꼬불꼬불한 하트 모양의 밀가루 반죽에 소금을 뿌려 구워낸 빵 과자를 말한다. 라틴어로 '작은 팔'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모양이 '사랑'을 의미한다는 설도 있다. 브레첼은 딱딱한 식감으로 알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말랑말랑하고 쫄깃한 식감이 보통이다. 브레첼의 종류, 형태, 크기 등은 지역과 빵집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브레첼의 굵은 부분에 칼집을 내 무염 버터를 바르거나 초콜릿 등을 바르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 이탈리아의 치아바타(Ciabatta)

파스타, 피자 등 밀가루를 사용한 요리가 주를 이루는 이탈리아에서 빵 역시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다. 치아바타는 이탈리아의 바게트와 같은 친숙한 존재로, 이탈리아인들의 식탁에 자주 등장한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탄력이 있어서 촉촉한 식감을 자랑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소금을 섞은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치아바타를 반으로 잘라서 햄과 치즈를 넣는 이탈리아식 샌드위치 '파니노'로도 즐길 수 있다.





### 영국의 스콘(Scone)

영국의 애프터눈 티처럼 빵도 일상과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다. 스콘은 속을 넣지 않고 가볍게 부풀도록 철판이나 오븐에 구운 밀가루 빵이다. 스콘은 18세기 빅토리아 왕조 시대에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한 이후 애프터눈 티에 포함됐다. 영국 남서부 데번주에서는 예부터 클로티드 크림(유지방 율과 지방분이 많은 진한 크림)이나 잼을 발라서 먹는다. 먹기 직전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서 오븐 토스터로 데우면 한층 맛있게 먹을 수 있다.

### 미국의 베이글(Bagel)

원주민과 이민자들로 각국의 문화가 혼합된 미국에는 빵의 종류도 다양하다. 베이글은 예로부터 유대인이 일요일 아침 식사로 먹던 빵이다. 유대인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널리 퍼지게 됐고, 오늘날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빵으로 꼽힌다. 반짝이는 빵 껍질을 가진 베이글은 입자가 촘촘하여 속이 짙 차 있고 특유의 쫄깃한 식감으로, 저지방, 저열량 빵으로 손꼽힌다. 미국에는 베이글 전문점이 있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다. 반으로 잘라 갖가지 재료를 넣고 샌드위치로 만들어 먹어도 맛있다.



### 일본의 단팥빵

일본에는 폭신하고 부드러운 종류의 빵이 많다. 일본 빵 가운데 단팥빵은 빵이 흔치 않던 메이지 시대에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빵이다. 당분이 많이 들어 있는 부드러운 반죽과 촉촉한 단팥의 균형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단팥은 입자가 굵거나 알갱이가 씹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재료와 섞기도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할 수 있다. 차 또는 우유와 함께 즐겨도 좋다.

### More Tip 빵, 더 맛있게 먹는 법

**바로 먹을 수 없는 빵은 냉동 보관한다.** 냉동한 후에는 보통 1개월 안에 먹는 것이 좋다.

**잘 잘라서 먹는다.** 자르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모양은 물론, 식감까지 망칠 수 있다. 바게트는 쿠프가 갈라진 부분에 방향을 맞춰 자르면 나이프의 칼날이 빵 곁에 걸리므로 쉽게 자를 수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소형 빵은 수평으로 자르면 둥근 기포 면 덕에 질긴 식감이 없어진다. 산형 식빵은 식빵 밑부분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옆으로 눕혀서 자르면 산봉우리처럼 봉긋 올라온 부분이 찌그러지지 않고 두께가 균등하게 잘린다.

**재료를 적절하게 추가해 먹는다.** 버터, 치즈, 잼, 벌꿀 등 재료를 조합해 먹으면 맛이 한층 풍부해진다.



2022 가을호 <ON>에서는 강영민 간호사(내과계 중환자실) & 박주은 간호사(신경외과&재활의학과 병동)가 봄앤봄아틀리에(김미경 대표)를 찾아 '베이킹'에 도전해 보았어요!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빵을 파는  
비건 빵집



빵의 세계에도 비건이 존재한다. 버터, 우유, 달걀 등 동물성 지방을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데, 바로 비건 빵이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 있지만 '빵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면 비건 빵에 주목하자. 식물성 재료로만 만든, 건강한 빵을 내어놓는 비건 베이커리를 소개한다.

글 편집부 사진 스튜디오100 DB







건강하고 정직한 빵  
빵어니스타

2017년에 문을 연 빵어니스타는 스페인어로 ‘건강한 빵’ ‘정직한 빵’이라는 의미다. 현재 압구정과 이태원에 각각 매장이 있다. 빵어니스타는 거의 모든 빵에 알레르기가 생기지만, 결코 빵을 내려놓을 수 없던 이아람 대표가 만든 브랜드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 많은 이아람 대표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랜 연구 끝에 빵어니스타의 빵을 만들었다.

빵어니스타의 빵은 남다른 목적함을 자랑한다. 밀가루 대신 쌀가루, 사탕수수로 반죽하고 설탕 대신 코코넛 설탕으로 단맛을 낸다. 우유, 생크림, 버터 같은 유제품 대신 코코넛 밀크, 귀리 우유, 코코넛오일, 잔다리 전두부 등 엄선한 대체 재료를 사용해 빵을 만든다. 빵어니스타의 빵은 10여 가지로, 베스트셀러는 브라우니, 초코타르트, 비스코티다. 브라우니는 초코와 말차 브라우니가 대표 메뉴다. 특히 초코 브라우니는 생초콜릿 같은 식감으로 목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달콤함을 즐길 수 있다.

☎ 이태원점\_서울 용산구 보광로55길 3 1층, 2층

압구정점\_서울 강남구 도산대로25길 43

☎ 이태원점\_0507-1335-7769, 압구정점\_02-546-7768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더브레드블루

더브레드블루는 서울 신촌 지역에서 ‘과란 빵집’으로 유명하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 인증 마크를 획득한 비건 베이커리로, 이곳의 빵은 동물성 재료 대신 두유, 식물성 오일, 콩 단백질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다. 또 더브레드블루의 빵에는 어린 딸이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빵을 만들고 싶던 아빠, 문동진 대표의 마음이 담겼다. 나와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엄선한 재료로 매일 신선한 빵을 만든다.

특히 더브레드블루만의 노하우로 탄생한 천연발효종 빵이 인기다. 천연발효종이란 인공 이스트가 아닌 자연에서 배양한 발효종을 오랜 시간 발효시켜 얻어지는 천연 효모를 의미하는데, 더브레드블루에서는 직접 배양한 천연발효종을 사용하여 건강한 빵을 매일 정성껏 구워낸다. 이렇게 만든 빵은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돼 고령자가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

더브레드블루의 빵은 자사 온라인몰(thebreadblue.com)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통채널과 새벽 배송 시스템으로도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다.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3 ☎ 070-4405-0723



### 원데이 비건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앞으로의빵집

종로 익선동에 있는 앞으로의빵집은 ‘비건 빵도 맛있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친다. 이곳의 빵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재료는 모두 빼고, 신선하고 건강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는다. 버터, 우유, 달걀, 밀가루, 설탕, 소금, 쌀, GMO, 방부제와 색소가 들어가지 않고, 유기농 코코넛유, 유기농 콩기름, 유기농 두유, 유기농 코코넛 설탕, 비정제 사탕수수당, 유기농 현미, 지리산산앳빵이통밀, 수제 아몬드밀크, 수제 비건 버터 및 마요네즈, 수제 청, 수제 잼, 누룩발효 소금,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가 들어간다.

앞으로의빵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무화과초코케이크다. 크림이 가득 들어있는 비주얼이지만 좋은 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맛을 내므로 체중 관리 중이어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다. 앞으로의빵집은 비건 브레드를 통해 비건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을 꿈꾼다. 원데이 비건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하는데, 인스타그램(@appppang)에 공지하므로 비건 베이킹에 관심 있다면 눈여겨보자. 매장은 일주일 중 금요일과 토요일 단 이틀만 문을 열고 있으니 새겨 두자.

©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2가길 29-1 ☎ 010-6662-2943



### 건강한 빵의 중심을 찾다 피뽏베이커리

방배동 카페거리에 있는 아담한 비건 베이커리로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든 빵을 내어놓는다. 다소 독특한 ‘피뽏’이라는 이름은 댄스스포츠 동작 이름에서 왔다. 댄스스포츠 스탠다드 선수였던 김민정 대표가 고심 끝에 지은 이름이다. “빙글빙글 아름답게 돌려면 내 중심은 물론이고, 상대의 중심을 잘 맞춰야 하는 동작입니다. 몸과 마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하루를 예쁘게 살려면 몸을 움직일 에너지가 필요해요. 따뜻하고 힘 있는 음식으로 그 에너지를 채우고 싶었어요.”

피뽏의 빵은 버터, 우유, 달걀, 백설탕, GMO,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무첨가 두유, 현미유, 국내산 유기농 현미, 우리 통밀, 제철 과일과 제철 채소 등을 넣어 만든다. 현미흑임자죽 케이크는 현미와 병아리콩으로 만들어 고소하면서 쉼의 향긋한 향이 더해져 베스트 메뉴로 꼽힌다. 오프라인 숍은 매주 주말에만 문을 열고 현재 매장 이전과 새 단장을 위해 준비 중이다. 9월 중순 이후 새로운 피뽏을 만날 수 있다.

©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5길 5 1층 ☎ 010-7730-8559





##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

### mtl효창

mtl한남은 독일 베를린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보난자커피(bonanza coffee)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카페로 유명하다. 6호선 효창공원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mtl효창은 mtl한남의 2호점이다. mtl효창에서도 보난자 원두로 블렌딩한 커피를 만날 수 있다. 이곳의 디저트 메뉴 중에는 비건 브레드가 있어 눈길을 끈다. 라즈베리스콘, 갈릭치즈스콘과 같은 일반 브레드 사이에 비건 바나나초코파운드, 비건 썬드화과파운드, 비건 퍼지초코스콘 등 비건 빵이 자리한다. 비건 밀크티도 판매한다.

mtl효창 매장은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돋보인다. 매장 한편에서는 재사용할 수 있는 빨대와 컵 등 에코라이프 제품을 판매한다. 디저트 포장 용기는 펄프 재생 용지를 사용하고, 빨대는 옥수수전분으로 만들어 생분해되는 제품을 쓴다.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69길 25 1층 ☎ 070-4259-3113



## More Tip 문화로 자리 잡은 '비건(Vegan)'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2020년 200만 명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5% 늘어난 250만 명으로 집계됐다. 건강을 이유로 비건(vegan·채식주의자)이 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던 이전 세대와 달리, 동물 윤리와 사회 문제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가 비건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비거니즘(veganism)이 하나의 유행이자 문화로 자리 잡았다. '비건'은 육식을 피하고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이른다. 비건 푸드는 고기와 생선은 물론이고 달걀 우유와 같은 동물성 식자재를 전혀 쓰지 않은 먹거리를 뜻한다.



## 빵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빵은 가루에 물을 넣어서 만드는 무척 단순한 요리다. 하지만 재료는 빵의 맛을 결정한다. 보통 가루, 빵효모, 물, 소금은 주재료이고 그 외에는 부재료라고 부른다.

가루는 빵의 향기와 맛을 좌우한다. 빵을 한 입 깨물었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식감은 밀가루 안에 포함된 단백질이 물과 섞이면서 탄력성과 침착성을 갖는 글루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힘이 강한 것은 강력분, 약한 것은 박력분이라고 하며 단백질 비율에 따라 가루의 이름도 달라진다. 볼록한 빵은 대부분 강력분으로 만든다. 강력분에 비해 글루텐을 형성하는 힘이 약한 준강력분은 프랑빵을 만들 때 사용한다. 호밀 가루도 널리 쓰이는데, 독일 빵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한다.

빵효모는 빵을 부풀리는 데 꼭 필요하다. 효모가 발효하고 탄산 가스를 생성하면 반죽이 부풀면서 탄력 있는 반죽으로 완성된다. 드라이이스트, 생 이스트, 인스턴트 드라이이스트, 베이킹파우더 등이 있고 가정에서는 보통 드라이이스트를 사용한다.

발효종은 과일이나 식물에 붙어 있는 천연 효모와 유산균을 증식시켜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발효종을 보통 사워종이라고 부른다. 발효종을 사용한 빵은 미생물에 의해 독특한 향

과 풍미가 있다. 물은 다른 재료의 활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빵의 반죽을 부풀리는 데 필요한 것은 빵효모(이스트)지만 그 활성을 돕는 것은 물이다. 소금은 반죽의 탄력과 발효를 조절한다. 달걀은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며 풍미를 한층 높여준다. 설탕은 반죽을 촉촉하고 부드럽게 만든다. 우유는 고소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다.

## 빵 만들 때 필요한 도구

### 재는 도구

- **타이머** 발효 시간이나 휴지 시간을 재기 위해 꼭 필요하다. 디지털이 정확하게 재는 데 효과적이다.
- **저울** 재료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다. 0.1g 단위로 계량하는 것이 좋다.
- **계량컵** 유리 재질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이 다루기 쉽다.
- **온도계** 제빵에서는 정확한 온도관리가 중요하다. 완성된 반죽의 온도, 준비된 물의 온도, 물을 끓일 때의 온도 등을 잰다.
- **계량스푼** 소량의 액체는 계량스푼으로 잰다. 액체는 표면이 가득 차게 넣어서 계량한다.

## 이것만 있으면 나도 파티시에

가정에서 빵을 즐기는 ‘홈베이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빵 도구를 제대로 갖추고 싶어 하는 이도 많다. 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와 준비하면 좋은 도구를 알아보자.

글 김민정 참고 도서 『세상의 맛있는 빵 도감』(진선북스)





### 섞거나 반죽하는 도구

- **롤 패드** 실리콘 재질은 반죽이 들러붙지 않으며 반죽하기 쉽다. 반죽의 크기를 잴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된 것도 있다.
- **볼** 스테인리스 재질과 유리 재질이 있다. 증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21cm, 24cm 등 크기별로 준비하면 편리하다.
- **거품기** 재료를 섞을 때 사용한다. 와이어 수가 많은 것이 좋다. 큰 것, 작은 것을 각각 갖추면 편리하다.

### 늘리거나 형태를 정리하는 도구

- **페이스트리 보드** 롤 패드와 같은 역할이지만 어느 정도 크기와 무게가 있어서 고정성이 잘 되고 반죽을 늘리는 데 적합하다.
- **밀대** 반죽을 밀 때 사용한다. 지나치게 두껍거나 얇지 않고, 길이도 적당한 것이 좋다. 반죽 크기에 맞는 밀대를 쓴다.



###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

- **스크레이퍼** 버터를 자르거나 반죽을 나눈다. 플라스틱과 스테인리스 재질이 있다.
- **빵칼** 빵을 자르는 칼이다. 일반 주방 칼과 달리 칼날이 오돌토돌해서 빵이 부드럽게 잘린다.

###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

- **바네통** 감파뉴 등의 발효에 사용하는 바구니다.
- **빵 매트** 바게트 등의 반죽을 올려놓고 발효시킬 때 사용한다. 반죽을 발효할 때 위에 덮어 건조되는 것을 막아준다.

### 굽거나 식히는 도구

- **식힘 망** 완성된 빵을 식힐 때 사용한다. 다리가 달려 있고 통기가 잘 되는 것을 고른다.
- **솔** 빵의 표면에 달걀물이나 기름을 바를 때 사용한다. 달걀용, 유지용 등으로 나눠서 준비하면 좋다.

### 틀

- **구겔호프 틀** 중앙에 구멍이 뚫린 틀이다. 열전도가 좋다.
- **잉글리시 머핀 틀** 잉글리시 머핀을 구울 때 사용한다. 팬 위에 올려놓고 사용한다. 위에 팬을 하나 더 올려서 반죽이 너무 부풀지 않도록 한다.
- **식빵 틀** 반죽을 넣고 위에 뚜껑을 덮어 구우면 각형 식빵이 된다. 산봉우리를 만들어서 뚜껑을 덮지 않고 구우면 산형 식빵으로 완성된다.





# PEOPLE & HEALTH

## 잠 못 드는 당신에게

예부터 현자들은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잠은 최고의 명약이며, 재충전을 위한 처방전입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한 삶을 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잠 못 드는 날이 많습니다.

수면은 휴식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른 생활 습관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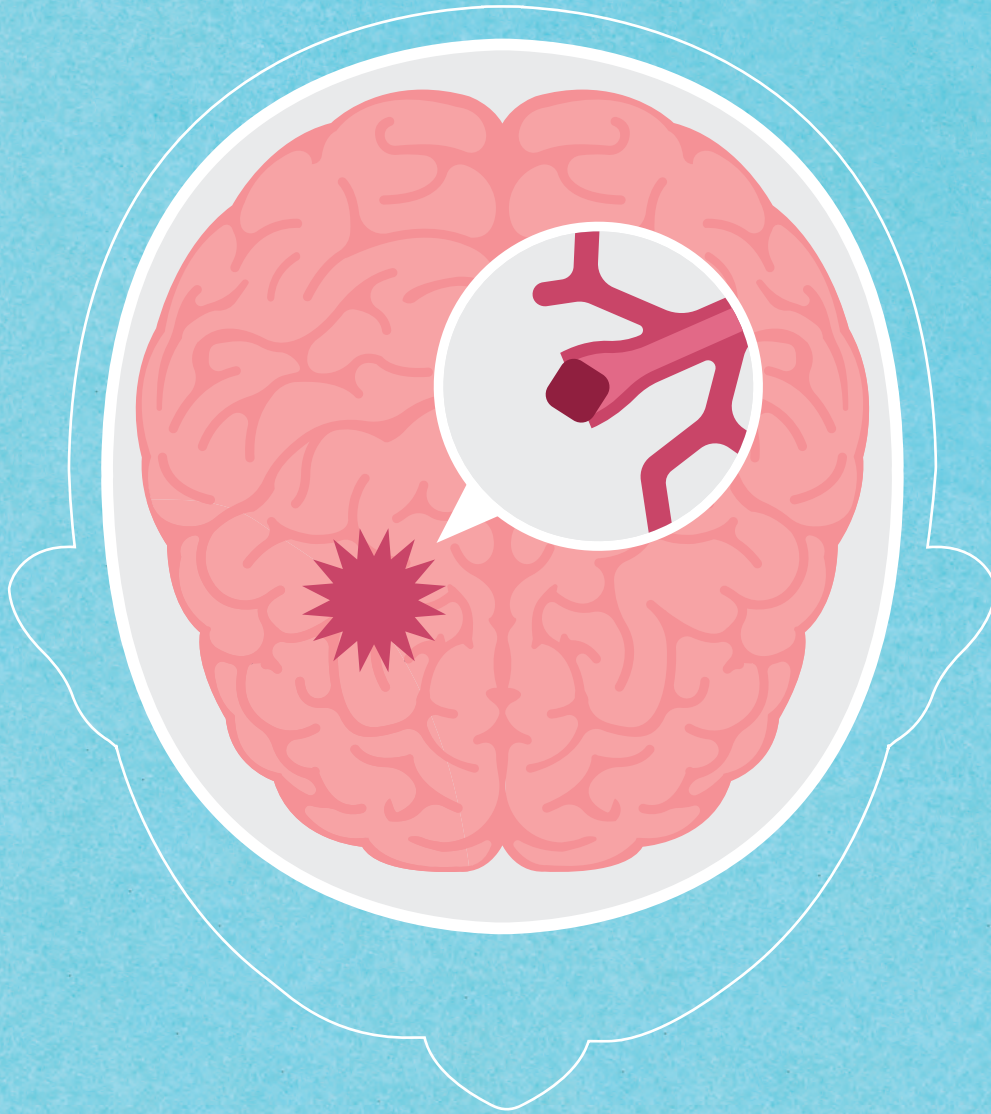
### 잘 자야 건강해요!

충분한 수면은 일상의 질을 높이고 각종 질병을 예방합니다.

수면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감정을 조절해 다음 날 신체활동을  
가능하게 하지요. 잠만 잘 자도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충분히 자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는 뇌경색의 원인과 치료



고령자에게서만 발생한다고 생각했던 뇌경색이 요즘 젊은 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뇌경색은 재발이 잦고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이다. 평소 전조 증상을 기억해뒀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찾자. 뇌경색의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봤다.

글 편집부 도움말 박희권(인하대병원 신경과 교수)



###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과 혈전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뇌경색의 주요 원인은 죽상동맥경화증과 혈전(혈액이 응고된 상태)으로, 죽상동맥경화증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 내피세포가 증식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혈관이 협소해지거나 막히면 뇌경색이 발생한다. 심장이나 혈액 등에서 생성된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발생한다.

뇌경색은 주로 겨울철에 노인에게서 잘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해 뇌경색 발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름철이나 청년·중년층에서도 자주 생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에는 과도한 냉방이나 열대야로 수면시간이 부족해지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또 무더위에 체수분이 감소하면 혈액의 점도가 상승해 혈전이 생성되면서 뇌경색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

뇌경색은 재발이 잦고 후유증이 심각하며,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므로 평소 전조 증상을 기억해두었다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야 한다. 뇌경색의 골든 타임은 1~3시간이다.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자.

#### 뇌경색 주요 후유증

언어장애	삼킴장애	균형장애
정서장애	인지장애	운동마비
편측무시	감각장애	

#### 뇌경색 전조 증상

한쪽 마비	갑작스러운 의식장애	갑작스러운 언어장애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원인불명의 두통	어지럼증 보행장애

### 뇌경색의 치료와 예방

인하대병원 신경과 박희권 교수는 뇌경색 치료에 대해 “뇌경색은 빠른 이송과 전문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이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 즉 병변 위치, 막힘·터짐의 정도,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생명을 구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한다.

뇌경색 치료에는 혈전용해술, 혈전제거술 등이 적용된다. 혈전용해술은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주입하여 막힌 뇌혈관을 개통하는 치료다. 혈전제거술은 동맥 속으로 가는 관(카테터)을 삽입하여 뇌혈관이 막힌 곳을 재관류(혈액의 흐름을 복구)하는 치료다.

뇌경색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질병이므로 생활 속 예방 습관을 꼭 지켜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 양질의 음식 섭취,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 피하기, 1회 30분 이상 일주일에 3~4회 걷기,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고혈압·당뇨 등 위험인자 관리하기, 절주·금연 등이다.





‘입원의학과’는 입원 환자의 진료 질을 높이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를 ‘입원전담전문의’라고 한다. 인하대병원에서도 2017년부터 국내 최초로 입원의학과를 개설해 환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진료하고 있다. 중환자전담의팀, 병동입원전담의팀, 신속대응팀(INHART)으로 나뉘는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를 소개한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 환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다

# 입원의학과

###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안전한 병원

입원의학과는 환자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과다. 인하대병원은 2017년 6월, 입원의학과를 개설했다. 2018년 3월에는 의과대학에 입원 의학 교실을 개설했고, 2020년 3월에 전임 교원 2명을 선발했다.

입원의학과는 중환자전담의팀, 병동입원전담의팀과 신속대응팀(INHART)으로 구성된다. 중환자전담의팀은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다장기 부전인 패혈증과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 흔히 볼 수 있던 급성 호흡부전 및 심부전 등 중증 질환을 주로 다룬다. 이런 질환은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중환자전담의팀은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기와 에크모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활용해 환자를 소생시키는 일을 한다.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전담의팀이 처치했던 환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 호전되면 병동 내과입원전담의팀이 나선다. 병동 내과계 입원 전담의는 이 환자들의 추가적인 회복과 재활을 돕는다. 또한 병동 내과입원전담의팀은 응급실에서 입원한 복합 질환자, 즉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환자들을 처치하기도 한다.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는 간혹 폐렴이나 수술 부위 감염 등 수술 후 부작용을 겪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또한 최근 고령화로 수술 후 관리와 처치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병동 외과입원전담의팀은 주로 외과 수술 후의 환자 관리를 맡고 있다. 입원전담의팀은 외래 진료가 없어 입원 환자에게 오

롯이 집중할 수 있다. 또한 환자 처치의 최종 의사 결정자인 만큼 신속한 의사 결정과 환자 및 보호자 면담 기회 등이 기존 진료체계보다 우월하다.

인하대병원 신속대응팀은 2015년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신속대응팀은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 병동에 입원한 전체 성인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들을 선별하여 조기에 처치하는 역할을 한다. 즉, 환자의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여 빠르게 처치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사망이나 상태 악화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도맡는다. 현재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는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외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응급의학과, 비뇨기과 전문의들로 구성되는데, 각 분야 전문의들이 다각도에서 환자를 살피고 처치한다. 중환자 전담의 5명, 내과계 입원 전담의 2명, 외과계 입원 전담의 4명, 신속대응팀 전담 간호사 5명, 입원의학과 전담 간호사 4명 등이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에 일원이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김정수 교수는 입원의학과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실제 환자들은 한 가지 질환만 앓거나 한 장기의 기능 이상만을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폐렴에 의한 패혈증을 앓는 환자는 신장 혹은 심장 기능의 이상이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입원의학과에서는 이런 복합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한다. 이어 김정수 교수는 “의료진들이 환자 곁에 있다는 것도 입원의학과와 장점이다. 환자의 상태 변화를 바로 알아챌 수 있으며 빠른 처치로 환자의 상태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각 구성원이 전공 분야가 다양하여 자체적으로 다학제 진료와 빠른 협의 진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와 목표는 24시간 전문의 진료가 가능한 안전한 병원 환경 구축이다. 현재 중환자실을 가능한 폐쇄형으로 구축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중환자를 중환자 전담의가 돌볼 계획이다. 또한 야간에도 중환자 전담의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내과계 입원 전담의는 지금보다 중증 복합 질환자의 처치 능력을 높이고 단기 응급 병동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단기 응급 병동

이란 응급실에서 내과계 일반 병동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단기적으로 내과계 입원 전담의가 치료하고 이후 더욱 전문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호전에 시간이 필요할 때 환자를 해당 과로 전과시키는 체계를 일컫는다. 이렇게 하면 환자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조기 퇴원이 가능해진다. 외과계 입원 전담의는 기존 외과뿐 아니라 전공의가 부족한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의 수술 후 환자 처치에도 참여하여 외연을 확장하고자 한다. 신속대응팀은 현재 인력 부족 등으로 하루 16시간만 근무하는데, 추후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을 충원해 24시간 환자의 상태 감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환자전담의팀



## 중환자전담팀

### 중증 질환 치료를 담당하다

중환자전담팀에서는 주로 중증 질환을 다룬다.

충분한 역량을 갖춘 중환자 전담 전문의들은 환자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며 중환자들의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환자전담팀에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소개해주세요.

중환자 전담 전문의는 중환자 세부 분과 전문의의 자격을 소지한 의사로서 중환자실에 상주하며 입원 환자를 돌봅니다.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은 EICU-A, EICU-B, MICU-A, MICU-B, CCU, SICU, ICU 등 총 7병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유닛에 적정 수의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응급의학과,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신경과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고, 내과계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60% 이상을 중환자의학과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 중환자전담팀의 일과가 궁금합니다.

출근하여 환자들의 전자 차트를 리뷰하고 치료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고민을 합니다. 오전 8시경이면 임상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회진하며 고민하던 접근과 치료를 공유하고, 전공의 파견이 있다면 전공의 선생님들의 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중환자실 회진을 마치면 오전 10시경 보호자들을 대면하거나 유선으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상황을 공유합니다. 이후 환자 상태를 모니터하다 보면 오전 일과 시간이 끝납니다. 오후에는 오전에 시행한 진단 검사들을 리뷰하고 치료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오후 2~3시경이면 전일 또는 오전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들 중환자실로 입원하는데 이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어느덧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 됩니다.

#### 중환자전담팀이 존재함으로써 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얻나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패혈증, 호흡부전, 쇼크, 심정지 등의 환자군이 대부분인데, 이들은 원인이 되는 장기 부전 외에 다발 장기 부전으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각의 질환이나 장기에 집중하는 치료보다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치료 성과와 의료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의 중환자 전담 전문의는 원인 질환이나 진행성 다발 장기 부전 환자를 돌볼 역량이 충분하며, 입원의학과 안의 여러 전문의와 원활히 소통하며 자연스러운 다학제 진료를 진행해 중환자실 병상 회전을 개선, 심정지 발생률 감소, 에크모 환자의 생존율 개선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중환자전담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중환자실로 입원하는 환자는 주로 급격한 상태 악화로 응급실을 통하거나 일반 병실에 입원 중 상태 악화로 중환자실로 옮겨 옵니다. 사실 이런 상태의 환자에게는 병원이나 의사 선택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 어떤 의료 기관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들 삶의 마지막 기간을 담당할 때가 많은데, 생명 유지를 위한 연명 치료에 앞서 환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합니다.

####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밤새 꺼지지 않는 조명과 각종 기계 알람 소리, 주변 환자들의 신음에 온전한 정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일수록 중환자실 재입원을 꺼리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동안은 힘드시겠지만, 환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불철주야 빛을 밝히겠습니다.

#### 중환자전담팀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2023년 중증 진료체계 강화시범사업에 인하대병원도 참여합니다.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에 대한 역량과 역할이 커지면서 우리 중환자의학과와 규모와 역량도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력과 장비 인프라 성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중환자 전담 전문의를 양성하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합니다. 향후 외과계 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력을 보완하여 중환자 치료의 전반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병동입원전담의팀

### 환자 안전을 위해 늘 함께

병동입원전담의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가치는 인하대병원의 가치와 같다. 바로 ‘환자의 안전’이다.

병동입원전담의팀은 입원한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이 없도록 늘 집중한다.

#### 병동입원전담의팀의 하루는 어떻게 꾸려지나요?

외과계 입원 전담의는 365일 근무체제입니다. 4명의 전문의가 주말, 공휴일, 명절 연휴 등에도 병동에 상주합니다. 오전에는 주로 회진과 수술 부위 드레싱을 합니다. 일과 중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환자들의 소소한 문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회진 때에는 환자와 1~2분 대화 나누기도 어려운 현실이지만 드레싱을 하는 동안에는 ‘환자 집에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느냐’ 대화가 가

능해집니다. 오후에는 주로 환자에 관한 기록과 오더 등 전산 작업을 하고, 보호자 면담 전화를 돌립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면회가 어려운 요즘, 보호자들은 환자의 안부나 경과가 궁금하지만 의료진을 만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고령 환자가 많아 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참여하는 진료를 하고자 되도록 잦은 유선 면담을 진행합니다. 다만, 아직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을 만큼 의료 인력이 충분치 않은 점은 무척 아쉽습니다.

#### 병동입원전담의팀이 존재함으로써 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나요?

인하대병원 입원의학과와 최대 장점은 유기적이고 다학제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와 세분화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한 명의 환자를 보는 데 여러 영역의 의료 지식이 요구되는 다학제적 진료가 중요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암으로 입원한 환자가 한 달 전에 관상동맥 치환술을 받았고, 혈압, 당뇨, 전립선비대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며 수술 후 폐렴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인하대병원에서는 우선

중환자팀이 환자를 인계받아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이후 일반 병동 전실이 가능해지는 시점부터는 병동 입원 전담의가 담당합니다. 치료 도중 환자 상태가 악화하면 즉시 중환자팀과 상의합니다. 병동 치료 중에도 내과적 문제는 내과 입원 전담의가 협진 형식으로 언제나 도움을 주므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하대 병원이 최고 가치로 삼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병동입원전담의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인하대병원의 가치와 일치합니다. 바로 ‘환자의 안전’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수술 후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 ‘간호사 → 인턴 → 전공의 → 교수 → 타과 협진’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호사 → 입원 전담의’로 콜 체계를 단순화하여 빠른 치료를 하고 나아가 빠른 회복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입원의학과와 큰 장점인 ‘의료인에 대한 접근성’과도 연결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병동 상주 인력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병동을 돌아보며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점도 귀담아들음으로써 수술 후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고 빠른 처치를 합니다.

####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입원 전담의와 입원의학과는 의료진에게도 아직 낯선 제도입니다. 환자로서는 수술하는 의사와 병동에서 돌보는 의사가 다른 것에 불신이나 반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좀 더 자주, 세심하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병동입원전담의팀의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최고의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로 ‘환자의 안전’이지요. 그러려면 현재 진행되는 365일 체제에 더해 24시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가 24시간 병마와 싸울 때 병동 입원 전담의도 늘 함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속대응팀(INHART팀)

## 환자 안전을 강화하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전체 성인 환자들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다가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하는 환자를 선별해

조기에 처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신속대응팀(INHART)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속대응팀 시스템은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악화할 위험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를 더 일찍 찾아낸 뒤 조기에 적절하게 처치함으로써 입원 환자의 심폐 부전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환자의 상태가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악화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마비 6~8시간 전에 이미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고, 70%의 환자는 8시간 전에 호흡기 문제 등으로 상태가 악화하는 증세가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 신속대응팀(INHART)은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위험 상태의 환자를 미리 선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 상태를 호전시켜 심장마비를 예방하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방지하는 원내 이중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 신속대응팀(INHART) 덕분에 환자들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되나요?

신속대응팀은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급병원 최초로 심정지와 사망 위험도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Deep Learning 기반 AI 시스템의 조기 경고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신속대응팀의 활성화가 다른 병원에 비해 높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녀갔습니다. 신속대응팀(INHART) 운영 후 병원 심폐소생률이 감소했고,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환자 안전 점수는 높아졌으며, 중환자 업무 부담은 줄어든 긍정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신속대응팀(INHART)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의 일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신속대응팀(INHART) 간호사는 출근 후 전산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고위험 환자를 선별 후 병동을 돌아봅니다. 선별된 고위험 환자는 INHART 교수님과 상의 후 해당 진료과에 자문 및 교육을 시행합니다. 유선으로 의뢰된 환자는 신속대응팀(INHART) 의사와 간호사가 10분 안에 병동에 도착하여 기관 삽관이나 인공호흡기 적용, 고 유량 산소 적용 및 약물 투여 등의 즉각적인 처치 후 담당 의료진에게 치료 계획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속대응팀(INHART) 간호사는 매일 선별된 고위험 환자의 중재를 시행 후 진료과와 중재 활동의 통계를 기록하여 팀의 업무성과를 관리합니다. 신속대응팀(INHART) 간호사는 실시간으로 전산 스크리닝을 확인 후 수시로 병동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하며, 낮번과 초번 근무 시 각 근무조마다 선별된 고위험 환자의 라운딩을 2회 이상 시행하여 환자 상태를 감시합니다.

**신속대응팀(INHART)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신속대응팀(INHART)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환자 상태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더 안전한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앞으로도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속대응팀(INHART)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신속대응팀(INHART)은 현재 신속대응시스템 2군 시범사업에 참여 중으로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총원해 24시간 운영하여 신속대응시스템 1군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영화 <만추>와 <냉정과 열정 사이> 추억을 불러오는 가을 영화



가을, 세상의 색이 변하고 기온이 쌀쌀해지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추억을 되새기게 된다.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며 이 풍경을 함께 바라봤던 연인을 생각하거나, 계절과 함께 묻어두었던 기억을 다시금 꺼내 보게 되는 것이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단편소설 《일인칭 단수》에서 “사랑이란 계속 살아가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연료”라는 말을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해도,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기억은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잊고 지낸 추억이 있다면 가을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 두 편을 보며 떠올려보자. 추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다가올까.

가을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다. 가을 풍경이 스크린을 수놓는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그때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에 흠뻑 빠져보면 어떨까.

글 유미지(프리랜서 에디터)  
사진 네이버 영화, 보람엔터테인먼트



글을 쓴 유미지 작가는 세계 33개국에 발간되는 패션 라이선스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을 비롯한 다수 매체에서 피쳐 기자로 활동했다. 현재는 여행, 컬처, 헬스를 두루 다루는 프리랜서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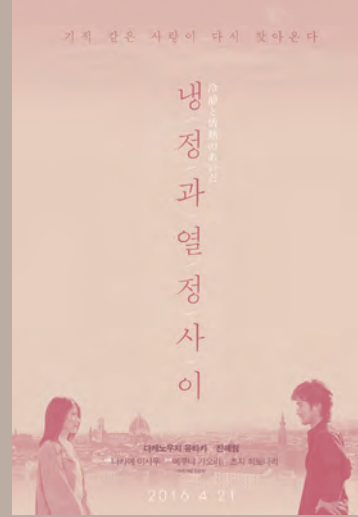




## 늦은 가을에 이뤄진 짧은 사랑

### <만추>

‘늦은 가을’을 뜻하는 ‘만추(晩秋)’는 지난 2011년에 개봉한 영화다.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와 <가족의 탄생>을 만든 김태용 감독의 작품으로 탕웨이와 현빈이 주연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따로 있다. 1966년에 발표된 이만희 감독의 <만추>가 그것이다. 김태용 감독의 <만추>는 3일간 특별의출을 나온 여자 죄수와 누군가에게 쫓기는 남자의 짧지만 뜨거운 사랑이라는 기존 플롯은 유지한 채 배경을 미국 시애틀로 변경해 새로운 스토리를 펼친다. 시애틀은 비가 많이 내리고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한데, 영화 속 풍경 역시 햇빛이 반짝이기보다 안개가 가득해 두 주인공의 마음을 대변하는 요소로 쓰인다. 각자의 복잡한 사정을 뒤로한 채 두 남녀 주인공이 즐거워 보이는 관광객들 사이에 끼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수륙양용버스를 타고 시애틀의 관광 명소를 돌아보는 장면, 포크에 빗대어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감정을 해소하는 장면이 이를 잘 드러낸다. 돌아갈 시간이 되어 안개 속에서 다시 만나자는 불확실한 약속을 남긴 채 헤어지는 두 사람. 그러나 그들에게 이후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다. 서로 함께했기에 충분히 행복했고, 그 기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 과거에 머무른 채 살아가는 두 연인

### <냉정과 열정 사이>

여기 또 다른 약속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두 남녀가 있다.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속 준세이와 아오이가 그 주인공이다. 스무 살 때 만나 사랑에 빠진 이들은 10년 뒤 이탈리아 피렌체의 두오모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나누는 채 이별하게 된다.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19년 전인 2003년에 개봉한 작품이지만 13년 뒤인 2016년에 한국에서 재개봉 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인생 영화라 일컫는 이 영화의 시간적 배경 역시 가을이다. 청명한 하늘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탈리아 피렌체 문화지구를 거니는 준세이와 아오이를 보며 이탈리아의 가을을 만끽하는 것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유화 복원사 과정을 수련 중인 준세이는 오래 전 화가들의 미술품을 복원하며 아오이의 사랑을 되돌리고자 노력하는 캐릭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아오이 역시 10년 전 약속을 가슴에 품은 채 현재를 살아간다. 서로를 그리워하던 이들은 결국 피렌체 두오모에 올라 10년 만에 재회한다.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약속을 잊지 않고 서로를 찾아 마주 보는 이 장면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이 영화 개봉 후 피렌체 관광이 폭발적으로 급증했었다.

영화 속에서 준세이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추억이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이라는 연료로 삶을, 또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 보시길. 올가을, 좋은 추억으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는 계절이 되길 바라본다.



밥상 위에 차린 단정한 건강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은 누구에게나 즐거움이자 소소한 행복의 순간이다.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건강에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올가을에는 우리 밥상 위에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올려보자.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메뉴,  
 버섯영양밥과 뿌리채소된장수프를 소개한다.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 버섯영양밥

### [재료(2인 기준)]

표고버섯 3개, 연근 1/3개, 당근 1/3개, 찹쌀 1컵, 쌀 1컵,  
물 2컵, 은행 6개, 밤 3개, 다시마 2조각, 멸치 한 줌,  
들기름 1큰술

양념장 진간장 3큰술, 다진 마늘 2작은술, 설탕 1/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들기름 1큰술, 깨·쪽파 적당량

### [만들기]

1. — 쌀과 찹쌀은 물에 씻어 불려서 준비하고, 냄비에 다시마, 멸치를 끓여 맛국물을 내어 준비한다.
2. — 표고버섯, 연근, 당근은 각둑썰고, 은행, 밤은 껍질을 벗긴다.
3. — 솥에 불린 쌀과 찹쌀, 맛국물을 넣고 그 위에 손질해둔 표고버섯, 당근, 연근, 은행, 밤을 넣고 중간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약한 불로 10분 익힌 후 뜸 들여 완성한다.
4. — 분량의 재료를 섞어 만든 양념장을 완성한 솥밥에 곁들인다.



### 건강한 가을을 기대하며

버섯은 건강식품으로 손꼽힌다. 특히 버섯은 채식 식단에 늘 포함되는데, 채식에서 결핍될 수 있는 비타민 B 복합체와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프로비타민 D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는 버섯은 종류에 따라 특정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다. 표고버섯은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양송이버섯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고, 팽이버섯은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땅의 기운을 충분히 머금은 뿌리채소는 맛은 물론이고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땅속의 숨은 보물이라고 불릴 정도다. 특히 현대인에게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등이 가득해 건강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된다.

고소하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우엉은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한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두피 노화를 예방하고 모발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연근은 100g당 50mg이 넘는 비타민C가 들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준다.

## 뿌리채소된장수프

### [재료(2인 기준)]

우엉 1/2개, 당근 1/3개, 연근 1/2개, 표고버섯 2개, 대파 1/2대, 미소된장 2큰술, 집된장 1큰술, 다시마 2장, 멸치 한 줌, 물 1L

### [만들기]

1. — 표고버섯은 도톰하게 채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고, 연근은 반달 모양으로 썬다. 당근은 도톰하게 어슷어슷 썰고, 우엉은 얇게 썬 뒤 식초 물에 담가 쓴맛을 빼고 준비한다.
2. — 물에 다시마와 멸치를 우려 맛국물을 준비한다.
3. — 냄비에 맛국물을 넣고 미소된장과 집된장을 잘 푼 후 연근, 당근, 우엉 등 딱딱한 재료들을 먼저 넣고 끓인다. 재료가 익으면 표고버섯과 대파를 넣고 한소끔 끓여 완성한다.













글 김민정 사진 윤선우(스튜디오100)

# 성수동 프리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일대가 뜨겁다. 아날로그적 복고 분위기를 풍기는 골목, 아기자기한 상점과 카페, 맛있는 음식점들이 MZ 세대를 불러 모은다. 요즘 같은 시원한 가을에 구경하기 좋은 성수동 탐방에 나섰다. 작은 일에도 깔깔 웃는 그들은 오늘 성수동을 누비며 자유와 젊음을 마음껏 소비한다.





## 빈티지한 매력이 흐르는 성수동

성수동은 젊다. 요즘 서울에서 핫플레이스를 꼽으라면 성수동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과거 서울의 홍대와 이태원이 이국적인 분위기로 젊은 층의 발길을 끌었다면, 성수동은 오래전 향수가 남은 듯한 빈티지한 매력으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

과거의 성수동은 인쇄나 수제화, 가죽 산업 등이 주를 이루는 경공업 밀집 지역이었다. 1970년대부터 모여든 수제화 업체들이 '수제화'라는 하나의 주제로 골목을 형성하고 올곧은 역사를 만든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성수동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과거의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해 만든 카페와 음식점, 상점, 문화공간 등이 다채로이 들어서 성수동만의 매력 있고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며 MZ 세대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성수역 4번 출구 인근에 자리한 성수동 구두테마공원과 드문드문 자리한 수제화 상점만이 과거의 성수동을 기억하게 한다.

MZ 세대가 자주 찾는 요즘의 성수동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홍보 지역으로도 활용된다. MZ 세대가 트렌디한 문화를 서둘러 인지하고 SNS 인증샷 문화 등으로 문화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이유다. 디올 성수를 포함해 여러 브랜드가 성수동에 팝업스토어나 쇼룸, 다양한 이벤트나 전시회를 열고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일에 여념이 없다.

성수동의 입지적 특성도 지금의 인기에 한몫한다. 성수동 인근의 성수대교 또는 영동대교만 건너면 바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 등 강남권에 닿는다. 성수동 일대의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는 인근의 지하철 2호선 똑섬역 일대와 분당선 서울숲역까지도 포함한다. 그만큼 성수동은 넓고 광활하며 서울의 교통 요충지로서도 충분하다는 뜻이 된다. 모두 걸어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둘러보자.







### 힙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상점들

성수동에는 복합문화공간이 여럿 자리한다. 성수낙낙, 성수연방, 엘시디시서울(LCDC SEOUL), 그라운드시소 등의 복합문화공간에서는 예술, 문화, 쇼핑 등의 활동을 한 자리에서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 말 문을 연 LCDC SEOUL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 안에는 카페와 편집숍, 여러 팝업스토어 등이 빼곡하게 자리 잡았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트렌디한 전시를 선보이며 유명해진 그라운드시소(@groundseesaw)에서는 오는 11월 13일까지 미스터리 포토그래퍼로 통하는 <비비안 마이어 사진전 : VIVIAN MAIER>이 한창 열리고 있다.

서울숲역 근처에 자리한 코사이어티(@cociety\_)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셜 살롱을 자처한다. 미팅과 업무를 위한 오픈 스튜디오, 커피라운지, 행사를 위한 넓은 홀을 갖췄다.

성수동에는 쇼핑과 여행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핫한 마켓도 자리한다. 보마켓 경리단점은 핵인싸들의 방앗간으로 통하는데, 보마켓 4호점이 서울숲에 있다. 낮에는 브런치, 저녁에는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데일리 와인과 테이블 웨어, 전 세계에서 온 진기한 식료품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서울숲점은 식료품 종류가 훨씬 다양하고 규모가 큰 것으로 유명하다. 유럽 어느 골목의 작은 상점을 연상케 하는 먼치스앤구디스는 인더스트리얼 콘셉트로 동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제품들을 큐레



이션해 선보인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한 식료품이나 소품으로 가득하다.

성수동에는 성수 카페 골목의 힙한 카페들은 물론 맛집도 즐비하다. 성수동 골목의 원조로 통하는 소문난감자탕부터 근사한 와인바와 레스토랑, 간판을 달지 않은 작은 음식점까지 다양하다. 성수동 골목을 지나다 눈에 띄는 곳에 성큼 들어서도 이미 예쁜 인테리어로 충분히 기분이 좋아지므로 대부분 만족할 것이다.

서울숲 근처에서는 붉은 벽돌 건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성수동 붉은 벽돌 마을은 저렴한 벽돌로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했던 1970~80년대 서울 풍경이 남아 있는 곳이다. 급속스러운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2017년에 만든 조례로 이곳을 보호할 수 있었다. 서울숲으로 가는 출입구에 있는 센터커피는 오래된 빌라를 개조해 사용 중인 스페셜티 카페다. 붉은 벽돌 건물의 발코니와 옥상에서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으니 둘러보자.

### More Tip 자연 속 온전한 휴식 공간, 서울숲

성수동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자연의 향기가 가득한 '서울숲'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18만 평 규모에 5개 테마공원으로 이뤄진 서울숲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서울 시민의 참여로 완성해 더욱 특별하다. 성수동 골목 구경을 마쳤다면 요즘처럼 화창한 가을 날씨에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울숲 한 바퀴를 산책해도 좋다.

위치 서울 성동구 뚝섬로 273 문의 02-460-2905









## 암 환자를 위한 맞춤 통합관리 암통합지원센터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은 여전히 모든 인류에게 두려운 질환이다.

하지만 인하대병원 암통합지원센터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암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암 전문 코디네이터가 암 환자와 가족에게 1대1 상담부터  
전문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 암 진단 후 정서적 지지까지 완벽하게 제공한다.

글 박지영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암통합지원센터 개소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4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새롭게 진단받는다. 암은 사망원인으로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2020년). 그만큼 암은 우리 국민의 삶, 가정, 나아가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가에서는 1996년부터 ‘국가 암 정복 10개년 계획’을 시행해 암 발생과 사망률을 낮춰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 있다.

인하대병원은 암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위해 노력한 결과, 대장암, 위암, 폐암, 유방암 등 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하대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데도 진단받은 암에 대한 정보 부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형병원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이유로 소위 서울 5대 병원으로의 이탈이 28.2%(2015년 인하대병원 암 산정 특례 등록자 기준)에 이르렀다. 이에 인하대병원에서는 암의 조기 발견, 진단과 치료, 더 나아가 예방과 교육에 효율적인 진료체계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암 환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7년 6월 2일, 최선근 센터장(대장항문외과)과 암 코디네이터 5인, 진료안내원 1인으로 암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암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암 진단 순간부터 암 코디네이터가 1대1로 암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빠르고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항암치료와 수술 관련 교육, 전문 치료를 위한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암 환자에게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위한 교육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1명의 코디네이터(암 코디네이터 9인, 암통합정보교육 코디네이터 2인)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유기적으로 활동하며 암 진단자의 약 90% 이상을 상담한다. 현재 인하대병원의 암 진단자 이탈률은 8%대로 감소했다.

###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추구하다

암 환자들은 암통합지원센터에서 빠른 검사와 통합적 치료, 전문 상담과 교육 등 암에 대한 질 높은 관리를 받는 동시에 정기 공개강좌나 지지그룹 활동을 통해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암 맞춤형 영양 관리 시스템으로 암 종류별 영양 관리에 대한 전문 영양 상담도 받는다. 암 환자가 안심하고 암을 치료받을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암통합지원센터에서는 암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와 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암 치료 기간 중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도모하는 암통합정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하대병원 분야별 암 전문의가 암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 정보, 암 조기 검진, 일상생활 관리를 인하 ‘애플’ 동영상에 담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환자 참여 교육은 미술치료, 캘리그래피, 웃음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현재는 암 치료 여정에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 암 환자의 마음학교 프로그램(암 환자를 위한 마음코칭)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암통합지원센터에서는 통합진료시스템을 통한 암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중심의 전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암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관리, 원스톱서비스(One Stop Service)로 환자와 보호자의 질적 만족도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통합지원센터는 기존 단순한 진료 위주의 암 치료가 아닌 암 환자와 가족의 처지에서 암에 대한 공포와 어려움을 풀어내고, 빠르고 정확한 검사와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암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Q 암통합지원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암 진단을 받고 최대한 빨리 검사와 치료를 원할 때, 정확하고 전문적인 암 상담을 원할 때, 암 관련 진료를 받고 싶으나 어떤 검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암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관리받고 싶을 때, 암 치료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사회복지사 상담 연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암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담당 진료의가 의뢰하거나 환자가 상담을 위해 암 종별 코디네이터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병원 내 3층에 있는 암통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정선 대장암 코디네이터  
**완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암통합지원센터에서 암 환자를 대할 때 충분한 관심과 마음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를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늘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지면을 빌려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치료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어 완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암 치료과정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암 코디네이터로서 늘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유리 두경부·갑상샘암 코디네이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암 환자를 만날 때면 환자의 처지가 되어 생각합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환자들은 정확한 판단과 생각할 여유를 잃어버리는 게 당연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하기에 ‘내가 이 환자라면 어떤 사항을 가장 우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수술 뒤 컨디션이나 경과가 좋다면 감사 인사를 해주실 때 코디네이터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반대로 수술하고 재발해 다시 수술해야 하는 환자들을 만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니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정 비뇨기계 암 코디네이터  
**함께 잘 이겨내기를**

암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암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났던 환자는 모두 기억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한 고령 환자는 사업 실패 후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도움받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수술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상담 후 수술 잘 받고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외로웠는데 따뜻하게 대해줘서 무척 고맙다'고 인사해주셔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랐을 환자들이 암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잘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한아름 폐암 코디네이터  
**등대가 되겠습니다!**

암 코디네이터는 병원 내원 전부터 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검사 진행과 결과를 확인하여 진단 및 치료과정 동안 안전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인 상담으로 환자에게 신뢰감을 제공합니다. 상담, 교육, 다학제 진료 등을 시행하며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토탈 케어 인 널싱(Total Care In Nursing)을 제공하는 것이 제 역할인데요. 환자가 성공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순간이 가장 보람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향을 잃은 암 환자들에게 '등대'가 되고 싶습니다.







내분비내과  
안성희 교수

내분비내과  
서다혜 교수 & 안성희 교수  
진료의 가치를 높이는 마음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서다혜 교수와  
안성희 교수는 서로 눈만 마주쳐도 까르르 웃는다.  
워낙 친밀한 관계인데다 가슴속 가득 밝고  
아름다운 에너지를 품어서일 것이다.  
웃는 모습이 꼭 닮은 그들이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진료실을 찾는 이들을 환하게 맞이한다.

글 편집부 사진 송인호(스튜디오100)

## 내분비내과 의사는

### 운명

Q >>>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분비내과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다혜 교수** 하위 전문 분야(Subspecialty)를 고민할 때 인디애나대학교(Indiana University)에서 내과 수련하던 중 그곳으로 연수를 나오신 연세의대 이유미 교수님께 내분비내과와 노년내과가 교집합이 크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안성희 교수**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의, 내과 전공의, 내분비내과 전임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내과 전공의 2년 차 내분비내과를 돌던 때에 지도교수님을 만나 내분비내과 환자 진료 및 연구, 그중에서도 골 대사질환 및 부신질환 관련 연구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Q >>> 교수님의 전문 진료 분야는 무엇인지, 해당 질환에서 강조하고 싶은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서다혜 교수** 전문 진료 분야는 당뇨와 비만이지만, 현재 외래에서는 다양한 질환을 동반한 환자를 모두 진료합니다. 그중에서 당뇨 치료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당뇨병은 발생 초기에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철저히 교육하고 적극적인 약물치료를 선행한다면 무너진 대사를 회복해 상당히 오랫동안 혈당조절이 손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희 교수** 갑상샘질환, 골 대사질환, 부신질환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많지요(웃음). 내분비내과에 해



당하는 질환의 빈도는 당뇨병이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갑상샘질환, 골 대사질환, 부신질환 등 당뇨병보다 상대적으로 발생 빈도는 적어도 중요한 질환이 많습니다. 갑상샘질환 중에서도 갑상샘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증가한 암으로 우리 병원 내분비내과에서는 갑상샘암을 진단하고, 갑상샘암 수술을 마친 환자들의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진행하며 장기 추적 관찰을 맡고 있습니다. 골 대사질환 중에서도 골다공증은 앞으로 도래할 초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질 질환으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쿠싱증후군, 고알도스테론혈증, 갈색세포종 등 부신질환은 빈도는 낮지만 각종 호르몬 검사와 영상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수술 또는 약물 치료를 결정해야 하는 질환으로 내분비내과의 숨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강하게 웃으면서 퇴원하는 순간

### ㉮ >>>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 이야기가 있나요?

**서다혜 교수** 2017년에 인하대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2형 당뇨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습니다. 첫 진



료 때 이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고, 당뇨병성 신장병증으로 식이가 상당히 제한된 분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으시니 늘 부인과 동행해서 외래를 찾으셨는데,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작은 밀크 초콜릿 하나를 사 들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가장 먹고 싶은 것 중에서 골라 제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아팠습니다.

**안성희 교수** 기억에 남는 환자는 많은데요. 최근 환자 중 골다공증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지 못해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고, 이후 전신 쇠약이 생겨 거동할 때는 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던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가 있습니다. 최근 진료실 문을 열고 직접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저도 모르게 환자와 가족들에게 환호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 ㉮ >>> 의사로서 보람 있는 순간이나 힘든 순간은 언제 인가요?

**서다혜 교수** 의사로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건강을 회복해 웃으면서 퇴원하는 때입니다. 가장 힘들 때는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잘못된 상식으로 고집을 피울 때,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처치를 거부할 때입니다.

**안성희 교수** 환자에게 숨겨져 있던 호르몬 문제를 증상을 통해 의심하고, 적절한 호르몬 검사와 영상 검사로 진단한 뒤 수술 또는 약물 치료로 해결했을 때, 증상 개선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된 환자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 보람입니다. 종종 힘든 순간도 있지만, 힘든 일은 금세 잊어버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웃음).

### ㉮ >>> 환자를 대하는 교수님의 진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서다혜 교수** ‘최선을 다하여, 세심하게, 신중하게 진료하자’입니다.

**안성희 교수** 지금까지 구체적인 진료 철학을 정해 놓고 진료하진 않았지만, 이 기회에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내분비 질환 분야의 최신 지견을 바탕으로 한 진단과 치료 방법을 제공하되, 이 정보를 환자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본인 질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식하고 치료 과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라,  
꿈을 가져라

Q >>> >>> **내분비내과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다혜 교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은 단판 승부로 완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분비내과 의사는 환자의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환자와 함께 성장하고, 나이 들고, 평생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희 교수** 내분비내과는 정말 재미있는 과입니다. 특히, 체내 호르몬의 항상성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질환 때문에 체내 호르몬 항상성이 깨지는 현상은 환자의 증상으로 발현됩니다. 우리는 이 증상을 잘 파악하여 호르몬 이상을 예측하고,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여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환자의 예후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무척 보람 있습니다.

Q >>> >>> **교수님께서 가치관으로 삼는 말이 있나요?**

**서다혜 교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일,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끊임없이 도전하라.’ Facebook chief operating officer(COO)이자, 잡지 <타임>이 선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인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가 테드 토크(TED TALK)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는 지입니다.

**안성희 교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 진료에 적용하여, 의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Q >>> >>> **인하대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전문 질환 관련 건강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다혜 교수**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건강검진자 중 39%가 비만으로 판정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도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만을 ‘전 세계에 만연한 신종 전염병’이라고 경고할 정도로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만이 흔한 만성질환으로 꼽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야기되는 만성질환 치료 이전에 조기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희 교수** 갑상샘암은 대부분 예후가 좋고,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에 치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재발률을 낮추는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 자칫 중요하지 않은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 비용을 늘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절 예방을 위해 낙상에 주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Q >>> >>> **앞으로 계획을 들려주세요.**

**서다혜 교수** 내년엔 미국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분과인 노년내과와 두 번째 분과인 내분비내과를 접목해 초고령화 사회로 가파르게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해보고 싶습니다.

**안성희 교수** 저의 전문 질환인 내분비 질환, 특히 갑상샘암과 골다공증은 장기 추적 관찰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장기 추적 관찰하는 동안 환자들의 삶의 질 전반을 높이는 일에도 신경 쓰고 싶습니다. 관련 연구를 계속해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 친절한

# 인하人을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칭찬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人>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정리 서비스혁신팀



2022년 6월



김지원\_이비인후과

**칭찬합니다!** 환자에게 친절하고, 보호자가 질문하면 잘 알아듣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아버지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눈높이에서, 마음을 다해 진료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입원간호3팀\_동 9병동

**칭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보호자 면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간호사님들이 보호자의 역할까지 하면서 사소한 일들까지 처리해주셨습니다. 늘 좋은 모습으로 응대하고, 처리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된 하루였지만 환자분이 적어주신 칭찬 문구로 힘을 얻어 퇴근했습니다. 내 가족처럼 여기며 간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 9병동이 되겠습니다.





이지혜(외래간호팀(암센터))

**칭찬합니다!** 늘 바쁘고 업무가 많아 힘들지만,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나마 암 환자들에게 보탬이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늘 따뜻하고 편안함을 주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7월

고서연\_입원간호 1팀(서17병동)

**칭찬합니다!** 항상 친절, 봉사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합니다. 배려심이 많고 상냥하여, 환자를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8월



이문희\_혈액종양내과

**칭찬합니다!** 교수님의 희망 가득한 메시지와 응원, 격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시원시원한 웃음소리는 우리 가족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해주었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하대병원 암센터에서 치료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미연\_진료운영지원2팀(당뇨비만센터)

**칭찬합니다!**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정성을 다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환자와 동료를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상 제목**

부인암 검사의 모든 것! #자궁경부암 #검진 #HPV

**채널 목록**

인하'애플'

**일자**

2022. 06. 14

**내용**

부인암 검사의 총정리 끝판왕! 자궁경부암 선별검사 이해부터 대상자, 발생 이유까지 모든 내용이 정리된 영상입니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이 영상은 정말~ 꼭~ 보셔야 한다고 강력히 추천합니다!

**영상 제목**

MY인하 앱 사용?  
이렇게나 편리한 병원 생활!

**채널 목록**

소식을 전하다

**일자**

2022. 06. 29

**내용**

우리 인하대병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요!  
인하대병원 MY 인하 앱이 전체적으로 리뉴얼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사 일정 조회부터 검사 결과 조회, 진료 예약, 내 번호 확인, 주차비 정산 기능까지? 안 되는 게 없네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MY 인하 검색하고 설치해보세요.



# INHA YouTube



**영상 제목**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연령별 변화,  
왕따가 더 많아졌다?

**채널 목록**

탐시크릿 : 건강수첩

**일자**

2022. 07. 11

**내용**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연령별 변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맹세리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특집 1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왕따가 더 많이 생겼다? 정답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2022. 05. 06**

**주제**  
일상 회복 부작용?  
엔데믹 블루, 상당수 존재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교수

**언론사**  
경인방송 90.7MHz  
'김성민의 시사토평'



**2022. 05. 12**

**주제**  
인하대병원 교수 겸  
딥카디오 CTO,  
벤처 창업 과정 소개

심장내과 백용수 교수

**언론사**  
메디칼타임즈



**2022. 05. 20**

**주제**  
과도한 음주는 간에 치명적...  
간 건강 지키려면 금주해야

외과 신우영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2022. 06. 02**

**주제**  
희귀질환 극복 관련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교수

**언론사**  
데일리메디

# INHA Media



**2022. 06. 16**

**주제**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제10대 회장에 선출

재활의학과 김명욱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2022. 06. 16**

**주제**  
대한백반증색소학회  
제2대 회장에 선출

피부과 최광성 교수

**언론사**  
헬스경향



**2022. 06. 24**

**주제**  
고령의 대장암 환자,  
절제술 통해 수술 없이  
조기 치료 성공

소화기내과 신종범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2022. 07. 05**

**주제**  
WILEY  
'최다 다운로드 논문'  
저자 인증

소아청소년과 김동현 교수

**언론사**  
뉴스스



## 1 민통선 마을 포함 김포 지역 의료 취약지 봉사활동 펼쳐

인하대병원이 인하대학교, 김포시와 뜻을 모아 김포 북부권의 의료취약지 5곳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시작했다.

인하대병원은 8월 10일 김포 통진읍 귀전3리 마을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의료진은 기본진료를 통해 주민들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상담하고, 수액 치료와 통증 완화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인하대학교 학생사회봉사단 인하랑 학생들도 의료진의 활동을 도와 대기자 접수와 안내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드렸다.

인하대병원과 인하대학교, 김포시와 김포시 보건소가 함께 추진·진행하는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9월 6일까지 5차례 계속됐다. 통진읍 귀전3리를 시작으로 8월 17일 월곶면 용강리, 8월 25일 양촌면 학운5리, 8월 30일 대곶면 대벽4리, 9월 6일 하성면 시암1리를 방문해 봉사했다.

특히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수월하지 않은 월곶면 용강리와 하성면 시암1리 주민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옥 사회공헌지원단장(재활의학과 교수)은 “직접 김포지역의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아픈 곳을 살펴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곳의 주민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고, 중도·중복 장애 학생 돌봄 등 인하대병원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의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 환자경험평가 전국 1위

인하대병원이 전국 병원 359곳 중 환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병원 1위에 선정됐다. 지난 7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1년(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에서 인하대병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개인의 선호와 필요가 존중되고 병원이 이에 상응하는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평가다. 심평원은 2017년에 처음 환자경험평가를 도입해 2년 주기로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인하대병원은 6개 평가영역 종합 평균 점수 90.48점을 기록하며 전국 병원 중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이 됐다.

특히 평가영역 중 종합평가와 타인에게 추천할 만한 병원인지를 묻는 ‘전반적 평가’에서 전체 평균인 81.86점을 훨씬 웃도는 93.28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인하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3년 7월 전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 왔다.

향후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는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쓰인다. 또한 정부와 관련 단체의 정책 자료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할 때부터 진료, 검사, 입원, 수술, 퇴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최고로 제공해야 할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평가를 위한 노력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활동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3 SSG랜더스 프로야구단과 ‘희망 드림 캠페인’ 협약

인하대병원이 SSG랜더스 프로야구단과 함께 소아암 및 희귀질환 아동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인하대병원과 SSG랜더스는 7월 13일에 권계숙 대외홍보정책실장(소화기내과 교수)과 류선규 야구단장, 이재원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희망 드림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희망 드림 캠페인은 SSG랜더스의 프랜



1



2



3





차이즈 스타 이재원 선수의 정규시즌 타격 성적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재원 선수와 인하대병원이 안타 1개당 3만 원, 홈런 1개당 5만 원의 기부금을 각각 적립한다. 이 기부금은 시즌 종료 후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암과 희귀질환 치료에 쓰인다. 인하대병원은 2015년부터 인천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과 함께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 박정권 전 선수를 시작으로 박중훈, 문승원 선수와 함께 캠페인을 지속해왔고, 코로나19 팬데믹과 참여 선수들의 부상 여파로 2021년도 시즌에는 한차례 숨 고르기를 한 뒤 이재원 선수와 캠페인을 이어 나가게 됐다.

이재원 선수는 “이번 시즌 인하대병원과 새롭게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며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권계숙 대외홍보정책실장은 “좋은 성적으로 인천시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SSG랜더스와 이재원 선수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길 응원한다”며 “캠페인 타이틀과 같이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료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4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

인하대병원이 6월 29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협력 개발지원사업의 하나로 국내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역량을 활용해 수원국의 산업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착수보고회에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차관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측 협력 기관인 IT-MED 관계자 등 사업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사업 총괄책임자 박현선 교수(신경외과)는 이들에게 사업 전반의 진행 경과와 계획을 브리핑했으며, 각 컨소시엄 업체들 역시 맡은 과업과 계획을 소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사업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인하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동안 사업 대상지를 시찰하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무자 업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매끄러운 사업 진행에 필요한 토대를 닦고 귀국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꾸준하고 활발하게 국가 간 교류를 진행해왔고, 특히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보건의료 정보화 계획의 가속화를 지원하면서 한국의 선진 시스템이 해외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5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생명나눔 활성화 협력’

인하대병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이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5월 19일, 현동근 교수(신경외과)가 KODA의 의료자문 위원으로, 장기 이식센터 김현화·이유리 코디네이터(간호사)가 희망우체통 운영 위원으로 위촉됐다.

현 교수는 뇌사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이식 절차 진행 중에 신경외과적 변수가 나타나면 KODA 측에 의학 자문을 하게 된다. 코디네이터들은 장기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의 서신교환 시스템인 ‘생명나눔 희망우체통’을 운영한다.

희망우체통은 KODA가 가지고 있는 기증자 정보와 국립장기조직 혈액 관리원이 가진 수혜자 정보를 합쳐서 1대1 편지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온라인 우체통이다.

과거에는 범죄 수사나 장기기증 홍보 등 공익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증자와 수혜자 간 교류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수혜자와 기증자 가족 간 서신교환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장기기증사랑 인연맺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기이식센터를 운영 중인 인하대병원이 사업에 동참한다.

위촉식과 함께 ‘생명나눔 응원 캠페인’이 진행됐다. 뇌사자 관리와 장기 이식에 노력해온 병원 의료진과 교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전하고, 장기기증 홍보 활동을 함께 펼치는 행사다. KODA는 커피 트럭을 마련해 인하대병원 교직원 500여 명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함께 나아가는 인하대병원

##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제 사회에 공헌하다

‘지역사회에 보은’이라는 가치 아래 인천지역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개원한 인하대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도상국에도 발전된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수행한 몇 가지 사업을 소개한다.

글·사진 국제협력팀

### 국제 사회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는 인하대병원

글로벌 시대에 인하대병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도상국에도 발전된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고 의료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국제 사회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일러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하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으로 피폐해진 196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상 원조와 개발차관 등의 유상원조를 통해 사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교와 대학을 설립하여 우수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끝에 OECD에 가입했고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됐다. 전 세계적으로 원조받던 수혜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지위가 바뀐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 다양하게 추진하는 ODA

ODA는 위생, 보건, 교육, 인프라, ICT, 교통 등 지원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그 중 보건의료 분야의 ODA는 인류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UN 헌장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특히 최근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ODA 사업은 사업 성격에 따라 병원 건립 사업, 의료기기 도입 사업, 의료기기 유지관리 컨설팅 사업, 의료 인력 역량강화(교육훈련) 사업, 국가 보건의료 정책 설계 지원 사업, 병원정보시스템(HIS) 구축 및 유지 보수 관련 사업, 위 사업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타당성 조사 사업 등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인하대병원 역시 그동안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공화국, 러시아 등 다수 국가에 의사 연수 사업, 의료기기 컨설팅 사업, 병원 증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 국제 사회 공영에 노력하고 있다. 그간 수행한 사업 중 주요 사업들을 소개한다.



#### 1 —

먼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베트남의 4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기기 유지·보수 노하우를 전수하고,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감염병원 증설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양국의 실질적 교류 협력에 기여했다. 특히, 후속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감염병원의 의료진 역량 강화 사업(교육 훈련)도 진행 중이다.

#### 2 —

우즈베키스탄은 2019년 대통령 순방의 후속 조치로 우즈베키스탄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정보 플랫폼 구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실제 사업화하여 21년 이래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3 —

이같이 인하대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인류사회의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계획서



##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 ■ 연명의료중단항목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상담·문의 | 032-890-2222 (인하대병원 연명의료상담실)



안전에 Think **Safety**  
가치를 더하다 Build **Value<sup>+</sup>**



**인하대병원**  
INHA UNIV. HOSPITAL